

최근의 유가약세요인과 '92년 1/4분기 전망

최근 국제유가가 계속 약세 내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.

지난해 12월 20일 현재, 국제유가(OPEC 평균기준)는 16.38달러이다. 이는 지난 10월 25일(20.30달러) 대비 19%가 하락한 것이며 년중 최저치(6월: 16.28달러)와 같은 수준이다. '91년도 4/4분기 유가는 10월 19.82달러, 11월 19.23달러로 강세를 유지하였으나 12월에는 16.60달러로 급락하였는데 이는 수급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며, '91년 4/4분기 세계석유수급은 0.8백만 b/d의 공급과잉상태로 분석된다. 당초 전망으로는(1991. 11월), 수급균형이 예상됐으나 결과는 소비가 감소하는 반면, 非OPEC 생산은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.

4/4분기 세계석유소비비는 66.3백만 b/d로 예상보다 0.4백만 b/d가 적는데 이는 북반구의 난동과 정세 불안에 따른 소련 국내 감소에 기인한다. 한편 4/4분기 세계석유공급은 67.1백만 b/d로 예상보다 0.4백만 b/d가 많고, 이는 북해유전의 석유생산이 순조로운데다가 소련 석유수출(2.0백만 b/d)도 장애없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. 그 결과 4/4분기에는 0.8백만 b/d의 재고증대가 이루어졌다. '91년 말 운영재고 일수는 '90년보다 2일 증가된 것으로 추정된다.

'92년 1/4분기는 수급구조상 약세시황이 지속될 전망이다. 세계 석유수요는 67.7백만 b/d로 전년 동기 대비 0.7% 미증하는데 불과하며, '91년 4/4분기에 크게 증대된 재고수준이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.

개도국의 석유수요는 3.7%의 건실한 증가가 예

상되거나 OECD의 석유수요는 39백만 b/d로 '90년 1/4분기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. 이는 당초 예상보다 1백만 b/d 하회하는 것으로 美國 등 선진국의 경제회복지원이 그 요인이다.

또한 비OPEC 공급정체, 소련 석유수출감소('91년 4/4분기: 2.0백만 b/d, '92년 1/4분기: 1.6백만 b/d)에도 불구하고 소비감소와 재고방출로 1/4분기 OPEC 원유의 공급량(對 OPEC 원유수급: (all on OPEC Crude)은 22.6백만 b/d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. 이에 따라 '92년 1/4분기 유가는 OPEC의 석유정책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나 전반적인 약세기조가 예상된다. 수급구조상으로는 '91년 4/4분기(18.55달러)보다 2달러 정도 하락한 16달러 내외가 유력하다. 그러나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OPEC의 유가회복책이 구체화될 경우 심리적 상승이 반영되어 OPEC 평균유가는 17~18달러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다고 예상된다.

또한 이라크 석유수출 재개 여부(0.5백만 b/d)도 유가하락의 변수이다. 1/4분기 중 석유수출 본격화는 의문시되고, 쿠웨이트의 증산물량은 1/4분기 중 0.1백만 b/d에 불과,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.

종합해 볼 때, 향후 유가의 결정권은 사우디에 있다. 수급측면만을 본다면, OPEC이 현재의 생산행태를 지속할 경우 유가는 15달러 내지는 그 이하까지 급락할 가능성도 있으나 OPEC은 92년 2월 12일 시장감시위원회를 개최, 구체적 유가회복책을 논의할 계획이다.

————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동향